



브라더, 새로운 레이저·잉크젯 모델 7종 공개 소모품 비용은 최소! 신뢰성은 최대!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지사장 마에다 히로시, www.brother-korea.com)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역삼동 메리츠타워 지하2층 아모리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뛰어난 기능과 내구성을 갖추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한 최신 프린터와 복합기 7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개인 및 소호환경에 특화된 제품들로 브라더 고유의 신뢰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계와 저렴한 소모품 활용으로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한다. 출시 제품은 최신 흑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3종과 고속 컬러 레이저 복합기 1종, 잉크젯 복합기 3종이다.

흑백 레이저·복합기, 대용량 토너 기본 제공

흑백 레이저 프린트·복합기 HL-L2365DW, MFC-L2700D, MFC-L2700DW는 출력 속도와 토너 절약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향상을 이룬 제품으로, 탁월한 고속 인쇄 성능과 핵심 기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최대 30ppm에 이르는 고속 인쇄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장착된 자동 양면 인쇄 기능을 활용해 용지 사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4 2600매가 인쇄 가능한 대용량 토너가 구매 시 기본으로 제공된다.

컬러 레이저 복합기, 보안 기능·다양한 편의 기능 탑재

고속 컬러 레이저 복합기 MFC-L8600CDW는 컬러와 흑백 모두 최고 28ppm의 속도와 자동 양면 인쇄 기능으로 작업 소요 시간을 큰 폭으로 줄였으며, 최대 6000장(A4)까지 출력 가능한 초대용량 토너 카트리지를 적용해 시간과 비용 모두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안성을 강조한 관리 시스템과 업무의 유연성을 더해주는 네트워킹 관리 도구 및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인쇄가 가능한 모바일 프린팅 기능을 탑재했다.

잉크젯 복합기, 비용 절감 효과·뛰어난 내구성 자랑

DCP-J100 InkBenefit, DCP-J105 InkBenefit, MFC-J200 InkBenefit 등 A4 컬러 잉크젯 복합기 3종은 내구성이 높은 피에조 라미네이트 프린트 헤드를 장착, 대용량의 고속 인쇄 작업에도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제품 수리 및 교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A4 최대 2400장까지 인쇄가 가능한 초대용량 잉크베네핏 카트리지를 통해 소모품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잉크 카트리지는 자주 사용하는 컬러의 카트리지만 따로 교체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잉크 낭비를 최소화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 지사장은 “이번에 선보인 자사의 최신 프린터·복합기의 핵심은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에 있다”라며, “브라더는 지금까지 국내 사용자들과 쌓아온 높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과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